

드라마 이젠 짧고 스피디하게

시청 형태 변화에 4·6·9부작 단막극 활발

‘맨몸의 소방관’ ‘세가지색 판타지’ 등 연이어 편성

최근 16부작 또는 20부작이라는 드라마 형식의 틀을 깨고 4부작, 6부작, 9부작 등 다양한 형태의 ‘작은 드라마’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과거 단막극들은 주로 메인 드라마들이 제작에 차질을 빚을 때 긴급 투입 되는 ‘땀뽕’의 성격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탄탄한 스토리와 스피디한 전개로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KBS 2TV에서 방송된 4부작 ‘백희가 돌아왔다’와 ‘베이비시터’가 흔치 않은 소재로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화했다. 이에 올해는 연초부터 각 방송사가 앞다퉈 단막극을 내놓는 분위기다. 스타트는 ‘백희가 돌아왔다’로 재미를 독독히 봤던 KBS 2TV가 먼저 끊었다.

동명 원작 웹툰의 인기 에피소드로 재구성된 시트콤 ‘마음의 소리’를 금요일 밤 시간대에 5부작으로 편성한 것. 웹드라마와 TV판이 함께 공개된 ‘마음의 소리’는 마지막회 평균 시청률이 4.7%(닐슨코리아)로 5%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들었던 시트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바통은 로맨틱 스릴러란 장르를 내세운 4부작 ‘맨몸의 소방관’이 이어받았다. 열혈 소방관에서 뜻하지 않게 누드 모델이 된 강철수(이준혁 분)와 차갑고 수상한 상속녀 한진아(정인선)가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10년 전 방화 사건의 범인을 찾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지난 12일 처음 방송된 ‘맨몸의 소방관’은 첫회부터 진아가 10년 전 부모를 잃게 한 방화 사건의 범인으로 철수를 의심하게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코믹함과 긴장감을 겸비, 시청자들의 격려를 받았다. 18일에는 2회 연속 방송됐다.

설 연휴 직전인 26일부터는 MBC TV가 ‘초마니드라마 3종 선물세트’로 도전장을 내민다. 제목도 ‘세가지색 판타지’다.

100% 사전 제작되는 이 드라마에선 세 명의 젊은 PD가 각기 다른 내용의 스토리를 보여준다. 저승사자와 스타의 순수한 사랑, 노랑진 고시촌 속 판타지, 가문의 비밀을 담은 황금반지 이야기 등 세 편의 색깔이 각각 뚜렷하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 배우 윤시윤, 김슬기 등이 주연을 맡아 젊은 층의 단막극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제작진은 기대했다. 이를 겨냥,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의 콜라베이션이라는 강수도 됐다. 웹버전을 먼저 공개해 관심을 끈 뒤 TV판으로 한 번 더 눈도장을 찍겠다는 취지다.

‘세가지색 판타지’ 중 ‘반지의 여왕’을 연출한 권성창 PD는 18일 서울 상암 MB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청자의 시청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TV뿐만 아닌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어 PD들도 포맷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그리면서 “또 긴 호흡이 아닌 짧은 호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단막극도 기존의 단막극 형식만 고집하지 않고 달라진 플랫폼에 맞춰 다양한 포맷을 선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젊은 PD들에게도 다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아·주원 핑크빛 열애 중…톱스타 커플 탄생

배우 주원(29)과 가수 겸 배우 보아(30)가 열애 중이다. 한 살 차이의 ‘연상녀-연하남’ 커플이다.

주원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관계자는 18일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애 기간이나 첫 만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영화나 운동 등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원은 2006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했으며 이후 KBS 2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와 ‘오작교 형제들’, ‘각시탈’, ‘굿 닥터’, MBC ‘7급 공무원’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2015년에는 SBS ‘윙팔이’로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5월 방송을 앞둔 SBS 월화드라마 ‘엽기적인 그녀’를 촬영 중이며, 올 해 안에 입대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는 10대였던 2000년 1집 앨범 ‘ID : PeaceB’로 데뷔해 ‘넌버원’, ‘아틀란티스 소녀’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수가 됐으며 현재는 비



보아

주원

등기 이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에는 JTBC 드라마 ‘이반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 출연,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며 호평받아 향후 연기 자로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본업인 가수로 돌아가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언니들의 슬램덩크2’ 걸그룹 7인 확정

강예원·한채영 등 새로운 매력 기대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 멤버 7명이 확정됐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측은 최근 시즌2 멤버로 기존 멤버인 김숙과 홍진경 외에 새 멤버로 배우 강예원과 한채영, 가수 홍진영과 공민지, 전소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예원, 한채영, 공민지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지 않은 멤버들이란 만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제작진은 기대했다.

걸그룹 I.O.I에서 ‘센터 소미’로 사랑받은 전소미도 팀의 막내로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이목을 모은다.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방송, 문화계 멤버들이 꿈에 투지하는 계모임 ‘꿈계’에 가입하면서 펼쳐는 꿈 도전기이다. 시즌1에선 민호린의 꿈이었던 ‘걸그룹 프로젝트’ ‘언니즈’가 시청자들의 큰 응원을 받은 바 있다.

시즌2는 걸그룹 프로젝트를 ‘매인 꿈’으로 두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사이사이에 개인 꿈들에 도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니들의 슬램덩크’ 측은 전했다.

특히 걸그룹 프로젝트도 시즌1과 같은 음원 발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시즌1 걸그룹이 각자의 꿈 중 하나였다면, 시즌2는 무대로 가는 과정에 각자의 꿈을 담은 것”이라면서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숙, 홍진경, 강예원, 홍진영, 전소미, 공민지, 한채영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즌2는 다음 달 중순에 첫 방송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숨터(재)	00 수목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재)	00 불어라 미룡아(재)	00 안녕 자두야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레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5 우리말 겨루기(재)	00 비타민(재)	3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55 닥터 365
2	45 이웃집 찰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튜튼생활체조	00 아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연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둑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클로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수목드라마 〈맨몸의 소방관〉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선다큐 〈시니어 도전기, 인턴〉	10 해피 투게더	05 닥터고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킹 특선다큐 히말라야 넘어 학교에 가다	35 웹드라마 〈그녀를 찾아줘〉	15 MBC 뉴스 24 4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영 유치원 1~2 08:3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열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박연경의 파에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피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소피와 친구들 15:05 두키 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요술 상자 15:45 코코코 다코 16:15 두다다쿵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1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크오울	20:50 세계테마기행 〈태양의 나라 속세의 땅, 페루 4부 안데스의 숨겨진 보물, 우양카요〉 21:30 한국기행 〈겨울에는 무작정 4부 아카이 블루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교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모든 자국으로부터 격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22일 丙午)

子 48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자. 60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72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용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발인하는 것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자. 행운의 숫자 : 27, 21	午 42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다. 54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매듭지어진다. 66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타지게 된다. 78년생 속단하기는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90년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니라. 행운의 숫자 : 59, 39
丑 49년생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61년생 전체적인 판국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73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이나 습기를 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85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93, 64	未 43년생 학업이 많다. 55년생 얻을 독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67년생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다. 79년생 감미로운 기쁨이 있겠다. 91년생 보편타당해 야만 설득력을 얻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5, 16
寅 50년생 확인과 검토는 오류를 방지할 것이다. 62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확연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74년생 절실한 사항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86년생 양자택일해야 할 갈목에서 팔하 갈등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8, 95	申 44년생 적절하게 지속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두리라. 56년생 약간만 신경 쓰면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68년생 감운이므로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80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3, 85
卯 51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되리라. 63년생 환과가 도사리고 있다. 75년생 자연히 해결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던 일이 나 계속 진행하여라. 87년생 실수를 두려워하기는 대응력이 약화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7, 34	酉 45년생 오해를 받고 있을 소지가 크니 매사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57년생 주된 일에 매진하면 부수적인 사항은 자연히 해결된다. 69년생 공을 들여라. 81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47, 98
辰 52년생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매우 허귀하니 소중히 여겨야겠다. 76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한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88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0, 88	戌 46년생 꺼려할 수 있으나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 58년생 추진보다는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70년생 기대했던 바는 물 건너가고 기쁨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 82년생 귀인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74, 41
巳 53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5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고 마음 또한 편안하리라. 77년생 소홀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89년생 매끄럽지 못하니 달이 나지 않게 하라. 행운의 숫자 : 06, 92	亥 47년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어도 지리멸렬하면 미련을 버리고 도록 하자. 59년생 순조롭게 진행되어 알찬 이익을 볼 수다. 71년생 연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83년생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8,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